

여명

2003년 여름호 (통권 제8호)

• 발행처: 여명가정봉사원파견센터 • 발행인: 도성숙 • 편집인: 이지영
• 전화 (063) 224-5673 • FAX (063)224-6896 • 560-860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579-5 • E-mail: careym@hanmail.net

여명가파의 3대목표

-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 가족기능의 회복
- 노인복지 정책 발전

여명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우애서비스, 가사서비스, 개인서비스 및 기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간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명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노인학대 예방상담센터는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욕구를 정상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지역사회에 제공함으로써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가족응집력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바람직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노인학대 상담 · 신고 전화 224-5673 여명노인학대 예방상담센터

노인복지와 · 고령화 신인구 기획단에 거는 기대

| 김 영 만 | 전주공업대 학장



일반적으로 노인복지라고 하면 개념 자체가 모호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넓은 뜻으로는 노인 생활의 전면 보장을 말하기도 하고, 좁은 뜻으로는 양로원과 같은 시설 등에서 하는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의미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노인복지는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노인의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문화적 생활유지를 국가나 사회가 보장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생명연장으로 우리나라도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1960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9%에 불과했으나 '99년 현재 6.8%로 증가했으며, 2000년에 7.1%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2022년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그 증가속도가 빨라(노인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22년)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 온 선진국과는 달리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그만큼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며칠 전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고 저 출산이 계속될 경우 기존 인구 구조가 크게 바뀌어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전 분야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국가 정책을 세우기 위한 “고령화 신 인구 기획단”을 올해 안에 대통령 직속으로 꾸리기로 하고 발표했다.

신 인구 기획단은 재정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 부처는 물론 학계와 연구기관에 있는 관련 전문가들로 폭넓게 구성되며, 인구 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 변화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출산 정책 전면 재검토, 정년 퇴직 시기 상향 조정, 노동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력 저하 대책, 복지 비용 증가 및 노인 문제, 재교육 및 평생 교육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 노인회와 한국노인문제연구소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생계유지”(51.2%)가 취업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고령화 신 인구 기획단을 신설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다소 늦은 감도 있지만 그동안 간과했던 문제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이러한 방안을 세운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십계명 중 대인계명의 첫 번째는 제 5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다. 특히 모든 계명은 ‘하지 말라’는 표현이지만 제 5계명만은 ‘하라’는 적극적인 말로 쓰여져 있다. 이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크나큰 사명임을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이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에베소서 6:1~3)”는 말씀을 모두가 다시 한번 간절히 마음속에 새겨볼 일이다.

2003년 여름호 (통권 제8호)

여는 글.....	2
목 차.....	3
봉사의 삶	4
가정봉사원 수기/이미경	
행복한 섬김, 나누는 보람.....	5
김제남양초등학교 교사 / 유 미	
어르신 초청어울림 한마당 잔치	6-7
2분기 활동사항.....	8-9
소식 및 동정.....	10
도움의 손길 - 가족소개	11



표지설명 : 어르신 초청어울림 한마당 잔치중 한 장면

여 / 명 / 가 / 정 / 봉 / 사 / 원 / 과 / 건 / 선 / 터

풍성한 삶을 소망하며...



| 이 미 경 | 가정봉사원

봉사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어르신들을 만나 뵈 때마다 좋은 일도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아파서 오랜 세월 동안 누워 계시는 분, 몸을 움직일 수 없어 봉사자들로만 의지하며 365일을 사시는 분, 외롭게 홀로 사시는 분들...

이렇게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해 처음엔 자원봉사를 단순하고 쉽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내와 자신을 낮추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함을 배웠습니다.

이로 인해 나를 돌아보고 봉사를 통해 삶의 여러 지혜를 깨우치게 됩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내 가족 중심이 아니요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작은 정성을 베풀어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임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간의 오해가 있을까 걱정이 되어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점차 정이 쌓여 어깨와 다리도 주물러 드릴 정도의 편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너무도 짧은 방문 같아 아쉽고 해 드리는 것이 없어 죄송할 뿐인데 우리의 방문을 기다리시고 얼마나 반가워 하시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르신들을 방문하는 동안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봅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기 보다 잃어버리고 지냈던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소중한 것들을 이제는 찾고 싶습니다.

또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따스한 손길을 전하는 여명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 봉사를 통해 저와 동일한 보람을 느끼고 사랑으로 하루 하루를 풍성하게 가꿔 나가길 소망합니다.

* 행복의 시작



| 유 미 | 김제남양초등학교 교사

여명가정봉사원과견센터에서 수고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김제의 아주 작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 미입니다.

봉사활동이라는 것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제가 후원하는 글을 쓰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금까지 제가 했던 봉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나도 창피하게 대학교 시절 교회에서 어린이 지체 부자유 장애 아동들이 있었던 곳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었던 그 한번밖에 없더군요. 언니 오빠들을 따라 갔었는데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과 많은 아이들, 그리고 너무 적은 봉사자 분들... 정말 해야 할 일이 많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언젠가 좀더 성숙해지면,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면 남들을 도우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세상으로 나온 후에는 그 곳의 열악했던 환경들과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학교 선생님을 통해 독거 노인들을 돌보는 여명가정봉사원과견센터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선생님의 권유로 아주 적은 돈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작은 정성이 홀로 외롭게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 쓰여짐이, 제게 이런 봉사의 기회가 생김에 감사 드립니다. 마음 속 깊이 자리잡고 있었던 소망을 작게나마 이루게 되어 기쁩니다.

봉사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 "(나라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일함" 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이와 같이 사전에 나와있는 뜻으로 봉사를 하려 하면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봉사라는 것에 접근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봉사라는 것은 아주 작은 친절과 관심, 배려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따뜻한 마음을 소외된 이웃에게 베풀어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어르신 초청 어울림 한마당 잔치 이모저모

5월 1일 어르신 초청 한마당 잔치가 철쭉이 만발한 본 센터 앞마당에서 열렸습니다.

130여 분의 어르신들과 60여 분의 봉사자들, 그리고 특별히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시장님을 대신하신 김황룡 완산구청장님, 김영만 공업대학 학장님, 유봉옥 예수병원 원장님, 유재성 효자2동 파출소 소장님, 정경옥 효자4동 동장님, 한재협 전북지회 최헌일 회장님의 20여 분의 내빈들께서 하나가 되어 신명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어르신들의 여생을 보듬어 드리는 보람된 사역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행사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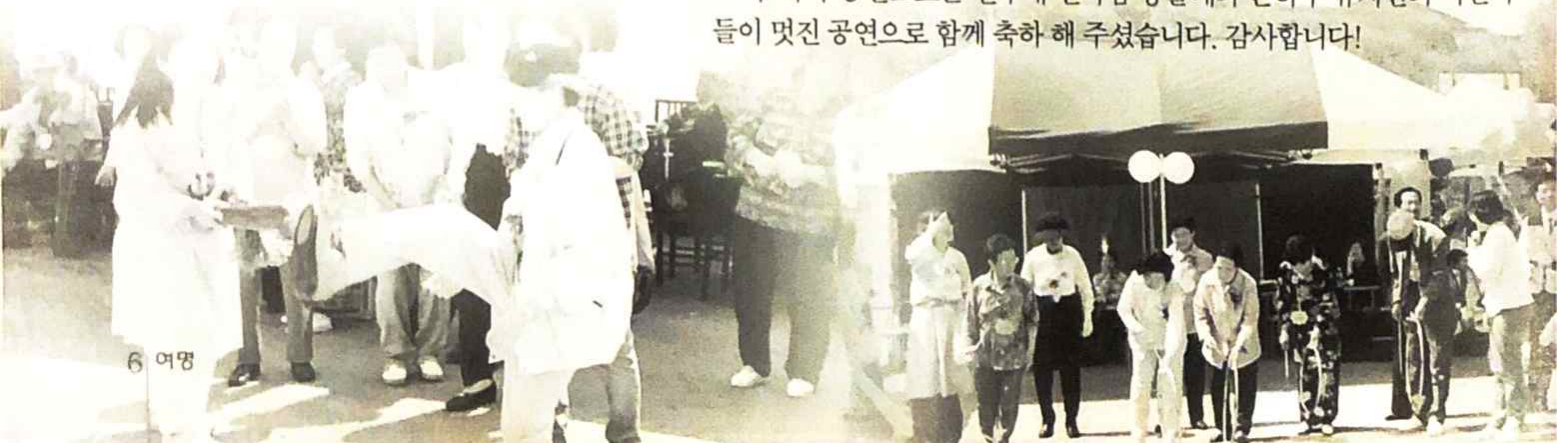
와! 드디어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어르신들을 맞이하기 위해 모두들 분주합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 입은 자원봉사자 분들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행사 후원자 분들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음향과 무대장식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기대되지요?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 행사 시작

먼저 1부 예배에는 전주 예수병원 유봉옥 원장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직원들과 가정방문 간호 봉사자, 가정봉사원들의 특송에 이어, 내빈들의 격려사와 축사가 있었습니다.

2부 축하 공연으로는 전주대 신바람 풍물패와 은하수 유치원의 어린이들이 멋진 공연으로 함께 축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까지의 행사를 마치고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맛
깔스럽고 풍성하게 준비한 갈비탕과, 장어구이, 통닭, 과일, 오색
나물, 떡 등을 봉사자들의 신속한 도움으로 모든 어르신들께서 맛
있게 드셨답니다.

어르신들께서 정말 맛있게 드시죠?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세요!

♥ 어울림 한마당

든든히 식사를 마친신 후에는 각설이와 이쁜이(?)의 북과 장구
가 어우러진 공연을 시작으로 어울림 한마당 잔치가 열려 많은 민
속놀이를 즐겼습니다.

굴렁쇠 굴리기, 재기차기, 투호 던지기, 오재미 던지기 등 누가
누가 잘하나 뽐내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시간 속에서 모든 근
심을 내려놓는 유쾌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장끼를 맘껏 자랑하는 행사의 하이라이트를
마치고 푸짐한 상품까지 어르신들에게 선사하였습니다. 특별히
수고 해 주신 각설이와 이쁜이(?)께 감사 드립니다.



♥ 먹거리 장터

어르신들의 즐거움을 더하고 옛 추억을 맛보시기 위한 먹거리
장터를 열었습니다.

순대, 떡볶이, 핫도그, 튀김, 아이스크림 등을 준비하여 어르신
들이 행사 내 지치지 않도록 준비하여 섬세히 어르신들의 마음
을 북돋아 드리는 소중한 장터가 되었습니다.



♥ 봉사자 활동

이 날의 행사를 빛내 주신 분들은 역시 자원
봉사자 분들입니다.

소리 없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진행에 협
조 해 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
릅니다. 특히 우산소녀들의 열띤 응원
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더욱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이 변함 없
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대상자 서비스 지원 활동



● 장애인 봄나들이 (4월 10일)

장애인 40여분과 봉사자 12분이 순창 강천사와 백양사, 내장산으로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강천사에서 맛있게 점심을 먹고 모두 함께 신나는 오락 시간을 가진 후 돌아오는 길에는 백양사와 내장산을 경유하여 자연을 만끽하였습니다.

오랜만에 삶의 시름을 내려놓는 유익한 여정이었습니다. 사회자와 음향 시설을 후원 해준 c.m 디자인 그룹과 모든 진행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도록 질서를 지켜준 장애인분들과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건강하세요!



● 어르신 초청 어울림 한마당 잔치 (5월 1일)

어르신들에게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해 드리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목적으로 센터 앞마당에서 어울림 한마당 잔치가 열렸습니다. 130여분의 어르신들과 60여명의 자원봉사자, 여러 내빈 분들의 축하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즐겁고 만족해하시는 풍성한 하루였습니다. 함께 협력 해 주신 많은 분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 선진 기관 방문 (5월 31일)

대상자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찾고 지역사회복지 이해를 돕기 위해 소양에 위치한 치매 전문 요양 시설인 성요셉 동산에 직원과 자원봉사자 15명이 다녀 왔습니다.

너무도 청결하고 곳곳에 운영하시는 수녀님들의 사랑을 느끼면서 더욱 도전을 받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배려해주신 요양원에 감사드리며 끊임없는 발전을 기원합니다.



● 후원금, 후원물품 전달 (4월 11일, 5월 15일)

대상자들의 안정된 삶을 작게나마 지원하고 위로하기 위해 64분의 대상자들에게 3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 대상자 분들에게는 필요에 따라 쌀 10kg, 기저귀, 파스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59분께 송선냉동에서 지원한 부서 1상자씩을 지원 하였고 10분께는 장어2마리를 지원 하였습니다.

우리의 정성으로 힘을 잃지 않으시고 용기를 내어 기쁨으로 삶을 채워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자원봉사자 교육(4월 10일, 6월 13일, 매주 월요일)

이번 분기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마인드 구축과 자질 함양을 위한 여러 차례 교육이 있었습니다. 4월 10일에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 교수겸 부속 한방병원 침과과 과장님이신 황우준 교수님께서 “노인과 건강”이란 제목으로 노인의 건강을 이해하고 봉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6월 13일에는 전주 남강병원 관절센터 소장님이신 김민상 소장님께서 “관절염과 척추질환” 예방을 위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질환에 관한 궁금증이 해소되고 예방과 대처방안을 자세히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6월 2일부터 매주 월요일에 전주 남강 병원 유성진 운동 치료사 선생님과 함께 봉사자들이 직접 운동치료를 실습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직접 대상자들의 불편한 몸을 만지는 운동요법은 마음까지 보듬어 드리는 효과를 거두고 있어 봉사자들에게 더 큰 보람을 주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신 강사님들과 이웃을 향한 열정이 끊이지 않는 자원봉사자들의 성원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 도배 및 대청소(4월 12일, 5월 29일, 6월 3일, 6월 6일)

어르신들의 청결한 주거 환경을 위해 많은 봉사자들이 사랑을 전하고 왔습니다. 4월 12일에는 여성교회 청년들이 신기순 할머니 댁을 청소하였고, 5월 29일에는 직원1명과 봉사자 2명이 송남순 할머니 댁 도배와 대청소를 하였습니다. 6월 3일에는 지역복지 대상자 권춘만님 댁을 직원 1명과 새전북 신문 봉사체험 기자단이 대청소를 하였고, 6월 6일에는 장애인 도시락 대상자 오두영님 댁을 진성택 봉사자 가족이 대청소를 하였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따뜻한 손길을 직접 전하는 봉사자 분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 저희 대상자들과 직원들은 행복합니다. 모두 모두 화이팅!



● 운영위원 간담회 (6월 24일)

박창체 어르신 외 6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사업을 논의하고 대상자들을 이해하는 2003년 2분기 운영위원 모임을 가졌습니다. 분기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노인복지 사업의 발전을 향한 노력에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주위를 둘러보고 건강한 복지 사회 구현에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생신 축하

김순옥 어르신 외 13분의 어르신들의 생신을 축하해 드렸습니다. 생신을 맞으신 당일에 문을 두드리는 정성에 한 분 한 분 눈물을 글썽이시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십니다. 저희들의 작은 정성을 너무도 소중히 아껴 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셔 더욱 겸손히 섬기리라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생신 축하드립니다!

센터 및 직원 동정

- ◆ 4월 18-21일 유급봉사자 양성교육에 1명이 수료 함.
- ◆ 4월 24-25일 부산 해운대 호텔에서 열린 제 13차 한국 재가노인 복지협회 세미나에 이지영 사회복지사 참석.
- ◆ 5월 15일 대상자 69분과 사회복지 기관 9곳에 송선냉동 예시 지원한 생선을 전달함.
- ◆ 5월 23일 전북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최한 실습 슈퍼바이저 교육에 이지영 사회복지사 참석
- ◆ 5월 31일 우수복지기관 탐방으로 치매 노인 전문 요양기관 성요셉 동산에 직원과 자원봉사자 15명이 다녀왔습니다.
- ◆ 6월 3일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실습생 1명의 실습지도를 마쳤습니다.
- ◆ 6월 20일 방문간호사업과 어르신 소그룹 소풍을 위한 차량으로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500만원을 지원 받아 12인승 그레이스 봉고를 구입함.
- ◆ 6월 24일에 2003년 2분기 운영위원 모임이 있었습니다.

대상자 동정

◆ 서비스 종결

- 효자 4동에 사셨던 이옥남 할머니께서 대전으로 이사 하셨습니다.
- 서곡에 사셨던 김쾌례 할머니께서도 완주군 동산으로 이사 하셨습니다.
새로운 곳에서도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이 사

- 지역복지 대상자 이기호님 께서 효자 4동에서 삼천 신일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편리한 보금자리로 이사 하심을 축하 드립니다!

◆ 새로운 대상자

- 최봉신(평화동), 이이주(평화동), 김옥윤(평화동) 김복순(송천동) 박순덕(효자4동) 님이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생신을 축하합니다

- 박창채, 김순옥, 김영희, 임정희, 오점녀, 신기순, 박동안, 박순례, 신기순, 김순임, 이옥례, 고윤봉, 이영순, 김 철

◆ 장애인 도시락 배달 대상자 소식

- 김정임(인후동), 이영근(여의동), 문해옥(평화동), 김향래(평화동), 김종순(평화동), 김윤경(평화동) 님이 새로운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더욱 건강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 여명교회 남선교회에서 평화동에 사시는 박영진님 휠체어 연습을 위해 매주1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소망 합니다!

봉사자 동정

- ◆ 방문간호팀 몸사랑 마음사랑 정기모임이 매월 1회 있었습니다.
- ◆ 박래승 봉사자님이 유영주 할아버님을 방문하여 휠체어가 다닐수 있도록 문턱 공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여명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가족

● 후원 가족 (2003. 4 - 2003. 6)

...물자후원

강원봉, 고정배, 고찬배, 고희석, 권순복, 김동희, 김정숙, 김창주, 김현석, 노경철, 노영숙, 노인숙, 문영선, 박노진, 박은영, 서영석, 소점례, 신순미, 양수진, 양유순, 오동철, 유 미, 유정자, 이금자, 이석길, 이석봉, 이석연, 이세라, 이점례, 이점순, 이정우, 임현주, 정숙희, 조옥선, 지은정, 진오범, 최경애, 최병환, 최봉남, 최정애, 형남만, 형복희, 여명교회제2청년부, (유)전주마트, 이마트전주점

...물품후원

강인농장, 김종락, 손인섭, 전중세
 승현상사, 전주마트 제과점, 신촌농장(송순모), 주은 축산유통, 한국식품, 하나로떡집, 봉유통,
 삼천동농수산시장(과일,수산), 칠칠수산(송천동), (주)하선정종합식품(전북총판),송천동건어물시장,
 효자식품, 여산식품, 한빛농산, 하림전주대리점, 송선냉동, 진미식품, 풍년제과(중화산동), 대림상사,
 국민소금, 삼남양금, 대주상사, 형계유통(시몬식품)

...어르신 초청 어울림 한마당 잔치에 도움주신 분들

고찬배, 김미경, 김영만(전주공업대학장), 김재필(자립원대표), 김황룡(완산구청장), 노경철, 노영숙,
 문영선, 박래승, 소점례, 소효례, 송기춘, 오동철, 이금자, 임영희, 이미경, 장한나, 정영란, 서명례,
 강철수, 양묘순, 엠마오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삼남양금, 가나화원, 전주하나로클럽, 이마트전주점,
 효자두부, 상록수 화훼농장, 남강병원, 대주상사, 신촌농장, 은교리배농장, 롯데서부대리점,
 대성유통, enoffice 이춘상, 낙원떡집, 오복떡집, 만나떡집, 민속떡방앗간, 롯데리아전주마트점,
 하림전주대리점, 롯데리아효자점(서부시장), O.K식품, 송선냉동, 만찬외식, 삼천동농수산시장(과일),
 C&M디자인그룹, 네오이벤트, 용진목, 전주파티&별론(예빛선교단),
 여명교회(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년부, 대학부, 중·고등부)

● 자원봉사자 가족

김성희, 김옥자, 김현아, 노승주, 문지연, 박지숙, 백경미, 백미라, 양인순, 윤미례, 이미경, 이병재, 이수영
 임은희, 장한나, 정영란, 조윤주, 주미애, 최명순, 최 현, 김기현, 김길순, 김요셉, 김은경, 김종문, 김종수
 김화영, 노영숙, 노정숙, 라병수, 박래승, 서명례, 양기순, 양유순, 양은인, 양효남, 오윤식, 우영동, 이소영
 정숙희, 조계석, 천홍지, 최영순, 여명교회중·고등부, 이미숙, 유준원, 김미예, 김윤일, 김남주, 정순경, 이보라

※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혹 기록상 착오로 누락된 분이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 여명가정봉사원파견센터

전북은행 510-13-0310192

국민은행 501-01-0601-523

우체국 400010-01-011708

농협 658-01-002798

소외된 이웃들의
마음을 보듬어 줄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모 우리의 작은 사랑을
집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가정봉사원	밀벗, 세탁, 설거지, 청소, 식사보조, 목욕, 병원동행, 행정업무대행, 시장보기, 책·신문읽어 주기 등
차량봉사자	장애인 도시락 및 밀반찬 배달, 어르신 병원동행, 방문간호서비스, 후원물품운반 등
후원자 (현금·현물)	식품류, 가전제품 등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 걸연후원
기 타	방문간호사, 의료봉사, 이·미용, 주택보수, 방역·월동준비(보일러) 등

여 · 명 · 가 · 정 · 봉 · 사 · 원 · 파 · 견 · 센 · 터

TEL. (063) 223, 224-5673 / FAX. (063) 224-6896/e-mail : careym@hanmail.net